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부성성 연구 - MBC <아빠 어디 가>에 대한 기호학 분석

Fatherhood Representations of Childcare Entertainment Reality Programs - A Semiotic Study on a Reality Program, "Where Are We Going, Dad?" of MBC

이란, 백선거
성균관대학교

Ran Lee(iran370@hanmail.net), Seon Gi Baek(baek99@skku.edu)

요약

본 연구는 기호학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재현된 부성성의 표상들을 분석하였다. MBC <아빠 어디 가>의 방영분 2편의 영상과 기호 체계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부성들은 그동안 모성의 전유 영역으로 이해되던 육아에 공동으로 헌신하는 페미니스트적 남성상을 표출하고 프렌디로서의 친근한 부성의 재현을 통해 현대의 이상적 부성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성상의 변화는 감성적이면서 양성적인 남성으로의 변화를 함의하는 포스트모던적 남성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다.

<아빠 어디 가>의 부성들은 육아 실천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육아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육아 미숙의 상황을 간헐적으로 노출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육아에 대한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들이 재현한 육아 실천의 남성상은 현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시도하는 것이었지만, 자녀를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존의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지니고 있고, 나아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이들의 포스트모던적 프렌디 부성로의 변화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 구조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 중심어 : |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 | 아빠 어디 가 | 공동 육아 | 성역할 사회화 | 기호학 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presentations of fatherhood of childcare entertainment reality programs. For this purpose, two episodes of <Where Are We Going, Dad?> of MBC were analyzed by semiotic analytic methods, especially, signs, images, combined level of significations, etc. The results indicated that fathers of the programs reflected modern ideal images of feminist fatherhood in which fathers cooperated to care children with mothers, and played the role of intimate friend-daddies, daddies as friends. A post-modern male ideology was inherent in those fatherhood changes.

Those fathers in this program intermittently exposed narratives of inexperienced fathers while dedicating themselves to cooperative childcare adequate to the purpose of the program, suggesting that it would reproduce the mother-childcare ideology as a result. Furthermore, although such reflected changes towards fatherhood enthusiastically involving in childcare represented the modern ideal fatherhood, it is still identified that gender stereotypes,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patriarchal male ideologies were inherent in the ways of their guiding children. In short, such trend of friend-daddies did not imply an revolutionary change from male-centered patriarchal family structures to male-female cooperated family structures.

■ keyword : | Childcare Entertainment Reality Program | Where are we going, dad? | Cooperative Childcare | Gender Role Socialization | Semiotic Analysis |

I.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 가장 일상적이고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미디어가 TV이며 사람들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1-3].

사회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TV는 사회의 젠더(gender) 담론들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의 지배적인 성역할 인식을 재현하고, 사회 문화적 젠더 역할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만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정체성과 젠더 역할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4]. 서울시의 한 자료에 따르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2005년 1만 6천명에서 2012년 3만 2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변화로 말미암아 가부장제 안에 보장되었던 남성의 정체성과 젠더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했는데, 특히 생계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과, 가사와 육아 전담인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는 일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었다[5].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남성 전업주부도 괜찮다’는 답변에 성인 남녀의 42%가 동의하였으며 ‘아들의 부역일’ ‘사위의 부역일’에 대해서도 각각 62.7%, 63.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가정에서의 남녀 젠더 역할, 남아선호도, 모성과 부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6].

또한 2012년 이후 아버지라는 존재의 중요성과 부성애(父性愛)가 대중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2013년부터는 3개 지상파 방송사에서 경쟁하듯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MBC의 <아빠 어디 가>를 선두로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의 <오 마이 베이비> 등 프로그램들이 신설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현대에 변화된 친가정적 부성성을 보여주고 바람직한 부성의 사례를 제시하는 계도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들이 여럿 존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현대의 탈권위적 남성성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에 비해, 본 연구는 보다 부성성의 견지에서

부성과 자녀의 밀착된 관계의 재현들을 기호학 방법으로 분석하면서, 특별히 페미니스트적 남성성(male profeminist)의 출현과 아동의 젠더 사회화에 기여하는 부성성(fatherhood)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들 역할들이 함의하고 있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성성에 관한 논의

부성성(fatherhood)은 인간만이 발전시켜 온 문화 현상이다. 부성은 남자 아버지, 부친을 의미하며 부성성은 부성이 자녀에게 나타내는 다양한 성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시대에 따른 남성성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7].

전통적 남성성은 여성 지배적이며 권력지향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평등 가치가 보편화된 시대에 포스트모던 남성성은 피상적이고도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남성다움의 전형을 깨뜨린다[8]. 이는 여성적인 감성을 추구하는 허여적 남성성, 성적 추동이 약화된 초식 남성성,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고 소비 지향적 태도를 일컫는 메트로섹슈얼성(metro-sexual)의 특징을 수반한다[9].

그러나 남성성의 내적 자질 구성이 양성적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의 가부장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현대 남성들이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행위하는 것은 힘(power)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style)의 문제이기 때문이다[10]. 남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허여적 감성 표현을 ‘힘의 상실’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탄탄한 권력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이를 부성성 논의에 적용하자면 부성이 자녀들과 친밀한 삶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남성 헤게모니적 권력구조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의 권력 약화와 허여적 남성성은 서로 상관이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남성성의 일부인 ‘친밀한 부성성’에 대한 현대적 논의가 중요함은 부성의 역할이 자녀의 젠더 역할 습득과 사회화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11-13]. 초도로우(Chodorow)는 자녀 양육에 있어 부

모가 정확히 절반씩 헌신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공동양육이 페미니즘적 사회 변혁의 열쇠라는 주장을 제기한다[14]. 특히 젠더 역할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남아들에게 있어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남아들은 남성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입장적 동일시(positional identification)를 발달시키는데 아버지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자신의 남성성을 부정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성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기존의 애착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버지 관여(Father involvemen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부성 역할에 접근한다[15]. 이들은 접근성, 참여, 책임감의 세 요인이 아버지 관여의 핵심임을 제안한다. 이 때 접근성은 아버지 존재 자체와 가용성을 뜻하고 참여란 아버지와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한 직접적 접촉을 의미한다. 책임감은 양육을 위한 의사결정 및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부성의 관여를 통해 지지되는 친밀함이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여러 영역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들은 매체에 반영된 부성성 논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7][16-19].

특히 초도로우는 부성의 부재가 자녀 성역할 형성에 치명적이며 소원한 관계의 부정적 효과로서, 남자는 '지배적인 남성성의 문화적 이미지'를 전유하고 젠더 차별과 가부장제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4]. 관련 연구로서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의 범죄와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고[20], 자녀의 심리 문제, 행동 장애와도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21]. 초도로우가 공동양육을 남아의 성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면 발부스(Balbus)는 공동양육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 미칠 교육사회학적 중요성에 역점을 두었다[22]. 부모의 공동양육을 통해 남아와 여아가 미래에 있어 친밀성과 자율성, 즉 공격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에 참여에 있어 감정적으로 동일하고 평등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양육은 성별 위계 관계를 해방시키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양성성이라는 특질이 성역할 사회화의 이상적 모습으로 제시됨에 따라 성차가 아닌 능력과 합리적 기대, 선택에 기초한 사회화의 개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초도로우와 발부스의 주장은 더욱 현대 사회에 적

합한 젠더 역할 사회화 이론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23]. 성평등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성과 관계없이 타고난 재능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차 편견 없는 동일한 유형의 양육이 필요하다. 남녀 아동 모두에 성 고정관념이 투영되지 않은 양성적인 특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육아에 부모의 동등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아버지의 자녀 사회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20][23].

이처럼 부성을 둘러싼 최근의 교육사회학적 담론들은 주로 '부성 부재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24]. 2차 세계대전은 전쟁 참여로, 전쟁 후에는 가정 부양의 의무로 부성이 부재하였으나 이혼율 급증 사회에 들어선 이후 다시 담론화 되었다. 부성 부재는 부친의 물리적 상실을 넘어 아동이 의지할 권위 체계의 상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부성의 물리적 공존보다 자녀 생활에 관여하는 관계 양상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시민 교육의 열쇠라는 점에서 현재 '훌륭한 아버지 되기' 담론은 교육사회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하고 있다[25].

현대의 부성은 모성과의 공동양육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내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데올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 인식 또한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단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이에 참여하는 외면적 시간의 양보다 부성이 어떠한 젠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사회화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부성들이 소지한 젠더 고정관념은 그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만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2.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

최근 미디어 속 부성의 재현은 부성 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욕망을 적극 투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부성을 이상적으로 상정하면서도 부성에 대해 존경하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26]. 특히,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감정표현을 금기시하던 남성상의 이상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탈권위적이고 감정표현에 익

숙한 부성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면서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반영한 분석일 뿐 실제로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깊이 있고 다양한 측면들을 비판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들이 기획 의도에 부합하게 재현하는 양식은 변화된 부성을 상징하나 이들의 자연스런 담화나 인식의 무의식적 노출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표면적으로 재현된 부성과는 상호 모순된 함축의미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경우, 현 시대의 변화된 기대를 프로그램 속 남성들에게 투영하면서 친구나 삼촌 같은 부성, 같이 놀아주는 부성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미요소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어[27], 이 프로그램 내에는 두 가지의 모순적이고 충돌하는 부성성이 존재하고, 시청자들은 이를 예능 리얼리티라는 프로그램의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인기는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쉽게 이끌어낸다는 데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과 감정이입이 지나쳐서 주창된 리얼리티를 실제 리얼리티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29]. 그러나 실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는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되며, 국내의 경우 예능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흥미와 의미 전달을 위한 서사(내러티브)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오락적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서사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면서[31] 동시에 감정이입을 통해 허구적 내용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32]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4].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서사는 정형화되어 있음에도 예측 불가능한 결론을 가져다준다[31]. 리얼리티의 정체성으로 이해되는 NG와 애드리브는 비예측성을 도발하게 되고 짜이지 않은 서사의 특수성 때문에 연출 과정 중에 기존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를 전복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29]. 이러한 특징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데올로기나 담론에 기반한 의미 체계들을 자연스럽게 재현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9].

육아 예능 프로그램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한 장르다. 육아하는 출연진들의 가정생활과 여행지에서의 활동, NG 등이 그대로 재현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경험적 현실에 대해 자기 의식적 재연을 취하는 특징을 띤다. 자기 의식적 재연이란 어색한 편집, 현장 설치 카메라와 음향장치의 노출, 출연자의 실수나 NG 등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요구되는 조작과 변형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지칭한다[31].

이러한 재현과 조작, 변형의 흔적을 통하여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거나 전복할 기회를 갖게 되는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특징적인 재현을 통하여 특정 시대의 대중의 욕망을 반영할 수 있다. 이때 미디어는 생성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반영하며, 점차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진 어색한 편집, 현장 설치 카메라와 음향장치의 노출, 자막의 개입, 출연자의 실수나 NG 등을 분석하여, 현 시대가 미디어를 통해 재현하고자 하는 부성 이데올로기를 고찰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 프로그램은 지상파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아빠 어디 가>이다. 기획의도를 보면 모성이 부재한 가운데 부성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그동안 가족에서 소외되어 왔던 아버지의 위치를 조명하고, 부성 육아의 가능성을 가늠해보자는 것이다[33].

본 프로그램은 2013년 1월 6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 시즌 1이 종영된 후, 2015년 1월 18일까지 시즌 2가 편성되어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MBC에서 방영되다가 2015년 1월 18일 최종적으로 종영되었다.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한 2편은 종영되기 직전인 2014년 11월 방송분들로서 그동안 서먹서먹하게 그려지던 부성-아동의 관계가 여행을 통한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시즌 2의 후기 방송분들을 전체

적으로 살펴본 후, 출연진 부성과 아동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 두 편의 방송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실제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데리고 출연하여 실제의 양육 과정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현시대의 부성 담론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특히 기획 의도는 시대 친화적인 부성상을 담아낸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부성 이데올로기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짜이지 않은 서사들을 통해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주시청자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2. 분석 방법

기호학 분석은 언어뿐 아니라 문화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에도 폭넓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분석방법이다. 기호학 창시자인 소쉬르(Saussure)는 기호가 '기표'와 '기의'라는 이중구조로 구조화되어 있어 이들 사이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관계에서 의미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소쉬르를 통한 기호의 구조적 관계의 발견은 이후 바르트(Barthe)에 이르러 사회적 기호로서의 구조와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기호는 일차적으로 지시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확대되면서 다른 의미가 부가되는데 이를 함축 의미라 한다. 이러한 함축 의미는 형태로는 신화와 연계되고 내용으로는 이데올로기와 연계된다.

이데올로기는 정의와 기능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의 비판적 견지는 이데올로기를 대중 조작의 산물로 보는 수동적 관점보다 대중의 무의식적 욕망의 투영으로 보는 능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중은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환상을 꿈꾸며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36]. 대중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이를 집단적으로 내재화한다.

오늘날 부성에 대한 대중의 욕망은 부양 기능과 아울러 정서적 사랑과 보호라는 시대적 필요를 적극 투영한 개념이다. 그러나 대중은 부성에게 투영한 자신의 적극적 환상을 대상의 본질이라고 믿으며 이를 이상화하고 내면화한다. 이때 내면화된 부성에 대한 이상화는 곧

집단 무의식의 형태로 한 집단을 통제하고 구성원들에게 확산된다. 이러한 이상화는 이데올로기화된 권력의 담론, 즉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미디어 등의 문화 상징체 속에서 강화된다.

본 연구는 한 사회의 설화나 구전 같은 신화, 나아가 미디어의 재현 속에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무의식적 욕망과 사회상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기호나 상징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체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이거나 신념, 이데올로기 등을 밝히고자 한다[8].

2.1 통합체 분석

이러한 기호학적 이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먼저 통합체 분석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로 구성된 이야기 구조를 제시하였다. 통합체 구조를 통해 각 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며 각 기호들의 연결이 전체 이야기 흐름에서 지니게 되는 전반적인 의미를 밝히게 된다[8]. 또한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며 전이되는지 드러내게 된다[37].

2.2 단계적 기호 의미작용 분석

본 연구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의 단계적 기호 서사체로 인식하고, 프로그램의 표상을 이루고 있는 기호들의 의미, 즉 기의를 분석하여 현대 사회 대중들의 부성에 대한 이상화와 그 함축 의미, 나아가 이데올로기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1차적 기의(denotation)는 간단하고 근본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유하는 의미이나 함축의미(connotation)는 보다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의미라 할 수 있다[34]. 함축의미는 특정 시기의 보편적 가치, 이데올로기와 연계되어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기호들의 의미작용을 분석하면 그 속에 은폐된 의미와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밝혀낼 수 있다는 이해에서 본 연구에 적용되었다.

[그림 1]은 이들 기호의 단계적 의미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된 단계별 의미구성 모형이다.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 개념, 바르트의 두 가지 유형의 의미화 단계, 나

아가 신화 및 이데올로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분석모형이다.

의미화 1차 단계		의미화 2차 단계		신화/이데올로기
기표	외시적 의미	함축적 의미		

그림 1. 기호들의 단계적 의미작용 모형

기호 구성 기표는 영상과 언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에서 구성되며 각각의 유형의 의미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의미를 이끌어낸다. 영상의 기호 분석을 위하여 피스크(Fiske)의 텔레비전 약호와 재현 및 신화 분석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35]. 현실적 차원에서 출연진들의 외모, 의상, 배경, 인물, 행동, 제스처 등은 ‘사회 약호(social codes),’ 재현의 차원에서 카메라 앵글이나, 주된 색채, 연출된 소품, 무대의 구성 등은 ‘기술 약호(technical codes),’ 마지막으로 평등주의, 가부장제 등의 신화적 차원은 ‘이데올로기 약호’로 설정하였다. TV 프로그램 안에서 표출되는 언어적 차원은 인물 캐릭터들의 발화와 자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분석대상이 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인 경우 의도되지 않거나 돌발적인 발화나 행위 사이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자막을 사용한다는 구조적 이해를 가지고, 자막도 분석에 포함하여 함축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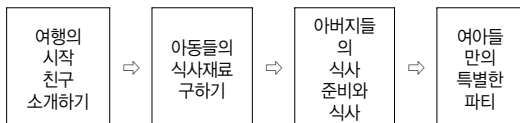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2014.10.12. ‘친구 특집’ 방영분

1.1 통합체 분석

전체 내용의 흐름과 전후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통합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의 주요 구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독특한 통합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 1. 2014.10.12. 방송분 통합(체) 구조



이번 방송분은 친구 특집으로 각자 가장 친한 친구들을 대동하여 시골의 한 마을 앞에서 각자의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아동들은 닭장에 진입해 계란을 줍고 닭을 잡는 등 식사재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된 식사재료로 아버지들의 식사 준비가 시작된다. 여아들의 가족들은 따로 펜션에 모여 파자마 파티를 즐긴다. 본 방송분의 통합 구조는 시골이라는 장소적 공간과 아동들에게 특정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아버지들과 풀어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 통합 구조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동과의 협조와 갈등 및 타결 과정을 조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통합체 구조를 지니고 있다.

1.1.1 부성과 모성의 관계

양육을 상징하는 ‘모성’과 ‘가정’이라는 두 요인을 떠나는 여행의 포맷에서 부성은 떠나기 직전까지 자녀의 취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었고 모성에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즉,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양육은 모성이 전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행지라는 상황이 주어지고 모성이 부재하자 부성들이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였고 현대의 이상적 부성상이라 할 수 있는 부성 육아를 실천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성과 모성의 관계는 이중적인 구조로 드러났다. 모성과의 공존 속에서는 모성의 양육에 의존하는 부성의 모습이었으나, 모성의 부재 속에서는 양육을 전담하는 모습을 보여 공동육아라는 페미니스트적 부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1.2 부성과 자녀의 관계

부성과 아동들은 여행지에 집합하여 즐거운 회합을 가지며 상호 협력적 관계를 드러냈다. 특히 부모는 아동의 친한 친구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서로 깊은 우정을 독려하였다. 이후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부성은 친근하게 자녀의 머리를 빗어주거나 눈높이를 맞추고 적극적으로 놀아주면서 친근하고 헌신적인 부성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전개될수록 여아와 남아의 동일한 행동에 대하여 기존의 젠더 고정관념으

로 평가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재현되면서 이상화된 페미니스트적 부성의 모습과는 다른 이윤배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1.2 단계적 기호 의미작용 분석

본 연구는 먼저 분석 단위를 영상과 언어의 범주를 나눈 후, 외시 의미와 함축 의미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미 분석의 결과에 해당되는 심층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현대적 부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부성 이데올로기를 분리하여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각각 [표 2]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2. 2014.10.12 방송분 현대적 부성성 의미

구성 요소	의미화 1차 단계		의미화 2차 단계	신화/이데올로기		
	기표	외시 의미	함축 의미			
영상	배경	시골 여행지, 펜션	자녀와의 여행	낭만, 추억 제공	공동 육아 이데올로기 프렌디 이데올로기 포스트모던 남성 이데올로기	
	무대	청암정과 앞마당, 자기소개	여행지, 시각화	자녀 관심		
	의상, 소품	파자마, 분홍중신, 페이스페인팅	놀이의 도구	자녀 중심 놀이		
	행동 제스처	여아 머리 묶어주기	여아 취향 만족	여아 육아 방식, 프렌디		공통 육아 이데올로기
		음식 준비	기본적 육아	육아 실천		
		분홍 파자마 입기	여아 취향 만족	여아 중심, 프렌디		프렌디 이데올로기
		자녀 친구와 놀아주기	자녀의 친구 관심	프렌디, 자녀 사회성 관여		
	카메라	아이들의 식사 보조	헌신, 배려, 기본적 육아	육아 실천, 희생적 부성		포스트모던 남성 이데올로기
		장기자랑, 놀이	놀이 주체	놀이 참여		
		미디어 숏 (부 vs 자녀)	관계, 친근함	프렌디, 공존		
언어	롱숏 (자녀들)	활동성	자유로운 활동			
	'오리 직접 설명해주는 아버지들' "어때, 맛있지? 아빠가 했다는 거 기억해."	기본적 육아, 자랑스러움	육아 실천, 자율적			
	"너희가 재미있어 하니 좋다. 나도 좋다."	헌신적, 감정표현	즐거움 육아, 허여적			

* Note: ' ' '의 경우는 자막 혹은 내레이션, " "은 인물들의 발화 단위임.

본 방송분은 육아를 즐겁게 실천하며 자녀들의 친구처럼 자신을 기꺼이 놀이 상대로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여아의 머리를 묶어주거나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여아들과 놀아주기 위해 기꺼이 커플 파자마를 입는 부성, 자녀에게 자신의 두려운 감정이나 사랑의 표현을 자주 표출하는 부성이 강조되었다. 본 방송분의 부성 출연진은 모성을 대신하여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봄으로써 초도로우가 강조하였던 공동육아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었으며,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보다 함께 놀아주는 친구 같은 아빠를 의미하는 프렌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다. 나아가 여아의 감정과 취향에도 적극 반응하는 양성화의 성격을 드러내어 포스트모던적 남성 이데올로기 역시 내재화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표 3. 2014.10.12 방송분 전통적 부성성 의미

구성 요소	의미화 1차 단계		의미화 2차 단계	신화/이데올로기		
	기표	외시 의미	함축 의미			
영상	배경	남아 시골 닭실 마을	활동적 공간	남성 활동성	성 역할 이데올로기 성 차별 이데올로기 모성 육아 이데올로기 여성 대상화	
		여아 외진 펜션	한적한 정소, 수동적	여성 수동성		
	색	여아 분홍, 하양	순수, 여성성	성고정관념		
	의상, 소품	여아 커플 파자마, 분홍중신	가정적 놀이, 비활동성	성고정관념		
	행동 제스처	카메라 밖 엄마에게 자녀 취향을 질문함	육아 무지	모성 양육권		성 차별 이데올로기
		(여아의 닭을 보고) 놀라 도망함	여아의 대담함편견	성 차별		
		(남아의 닭을 보고)반응하지 않음	남아의 대담함양 연시	성 차별		
	무대	여아 펜션, 네모진 무대, 일자 소파	시각화 비활동성	여아 대상화		여성 대상화
	카메라	여아 클로즈업 샷	외모 강조	여아 대상화		
		남아 롱 샷	활동성, 공적 거리	남아 공적 정체감		
언어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떠들기 시작하자) "또 시작됐네. 미처"	육아 불안	비일상적 육아			

“버리겠네” “난 청심환 먹고 왔어”			
(파자마를 입으며)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옷 처음 입어보네”	처음의 시도	비일상적 육아	
“와 인형같이 생겼다” “모든 아빠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여아 외모 강조	여아 대상화	
“심지어 재가 민율이 따라다녀”	여아 적극성 문제시	성 고정관념	
“와 민율이 능력 있어” “상남자”	능력 있는 남아, 미인 쟁취	여성의 상품 가치화	
(예쁜 여아가 닭을 잡아 오자) “생긴 것 답지 않게...아부지 누구시오?”	예쁜 여아의 수동성	여성 고정관념	

그러나 부성들의 육아 실천은 카메라 밖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질적인 양상이었다. 정작 자신이 놀아 주고 있는 자녀의 선호도 정보를 알지 못하여 카메라 앵글 밖의 아내에게 질문을 하는 등 육아실천은 ‘재현’에 국한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여아들을 위한 파티를 준비하면서 입게 된 분홍 파자마를 두고 이런 파자마는 처음 입어본다고 표현하는 한 부성의 발화는 이들의 육아 행위가 카메라 밖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연출적 요소임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소란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두고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집에서 청심환을 먹고 왔다고 발화하는 장면 역시 육아에 대한 이들의 헌신이 다만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방송 속 부성의 행위가 실천적인 육아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하더라도, ‘시대 친화적으로 변화한 부성’이라고 하는 제작 의도와는 거리가 있으며, 여전히 모성 중심의 육아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본 방송분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논점은 젠더 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젠더 차별적 인식의 재현이다. 남아와 여아 출연진들은 모이는 장소가 서로 달랐다. 남아들은 시골의 개방된 장소에 모인 반면 여아들은 분홍빛 풍선과 파자마가 이미 준비된 외딴 펜션이 집합 장소였다. 이러한 기획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젠더 고정관념의 분명한 투영이다. 여아와 남아의 성향을 미리 고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무대장치에 활

용하면서 소품과 부모의 역할까지 규정한 것이다.

출연진 부성들의 젠더 고정관념은 남아들의 집합처에서도 불거졌다. 한 남아가 미모의 여자 친구를 동반 하자 여행지는 그 미모에 대한 평가로 슬렁였다. “인형 같이 생겼다” ‘모든 아빠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는 언어 표현을 넘어서, 미모의 여자 친구를 소유한 남아에게까지 “민율이 능력 있어. 상남자” 라고 불렀다. 카메라 역시 이 여아를 상당 시간 동안 클로즈업해 보여 주며 외모 중심적 영상 구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기성세대가 오랜 시간 지녀온 여성의 외모에 투영하는 뿌리 깊은 대상화의 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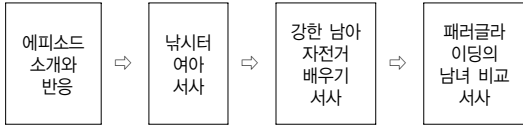
그러나 이 여아는 과감한 닭장 진입, 닭 포획의 장면에서의 괴력 발휘 등을 통해 남성적 성격으로 부각된 반면 다른 남아들은 닭장 진입 자체를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모습, 약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 등을 표출함으로써 기성세대의 남성 이데올로기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아와 남아의 파괴되고 전복된 모습을 바라보며 부성들이 투영했던 부정적 평가와 해석, 반응 등을 살펴볼 때 - 닭을 잡아온 여아를 보며 도망하는 행위나 “생긴 것 답지 않게... 아부지 누구시오?” 등의 발화- 부성들의 젠더 고정관념이 얼마나 유지부동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요컨대 미래지향적 세대로 출연한 남아와 여아들은 젠더 차이에 기초한 발현보다는 자연적 능력과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폭넓은 이상적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인 출연진 부성들은 여아와 남아의 젠더 역할을 규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여아와 남아를 차별적으로 교육하는 젠더 차별 이데올로기, 특별히 여아에 대한 성 대상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인식의 극명한 차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육아를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부성의 재현에는 페미니스트적 남성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부성 자신의 뿌리 깊은 젠더 고정관념을 변화시켜서 자녀의 젠더 역할 사회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였다. 표면적으로 표출된 페미니스트적 부성 이데올로기가 현시대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성의 보편적 변화라고 간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 2014.11.16. '깜짝 12시간 편' 방영분

2.1 통합체 분석

표 4. 2014.11.16. 방송분 통합(체) 구조



본 방송분은 각 가정별로 아이와 12시간을 함께 보내라는 미션을 받은 후, 각 가정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 세 명의 여아들을 키우는 첫 번째 가정은 아버지의 취미를 따라 뉴시터로 향하게 되었다. 두 번째 가정은 자전거 체험장에서 남아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는 과정을, 세 번째 가정은 패러글라이딩 체험장을 방문해 남매의 패러글라이딩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 방송분 통합 구조 역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을 조망하여서 아버지와 아동들의 협조, 갈등 및 타협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전형적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통합체 구조인 것이다.

2.1.1 부성과 모성의 관계

부성은 일상적 육아 상황에서 모성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평상시 아동과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기억하지 못해 모성에게 묻는가 하면 여행을 함께 하여 육아 부담을 나누자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포맷 상, 아동을 전담하여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성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양육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남성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2.1.2 부성과 자녀의 관계

가정에서 부성의 모습은 공동 양육을 수행하는 부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양육보다는 쉬는 선호하고 아동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션이 주어지고 놀이 장소를 방문한 부성은 관계 중심적이고 놀이 참여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아동의 놀이를 직접 지도하고 헌신적이고도 친근한 부성을 다양한 방식

으로 재현하였다.

그럼에도 부성은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식 속에 녹아있는 전통적 젠더 역할 이데올로기를 표출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젠더 고정관념에 기초한 교육을 시도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아동의 젠더 사회화에 부정적으로 관여하였다.

표 5. 2014.11.16 방송분 현대적 부성성 의미

구성 요소	의미화 1차 단계		의미화 2차 단계	신화/이데올로기	
	기표	외시 의미	함축 의미		
영상	배경	집안	공존의 장소	상호근접성	공동 육아 이데올로기
		아이들의 놀이터	놀이의 장소	자녀 선호의 놀이터	
	인물	자녀들	놀이의 주체	부성과 놀이하는 자녀	
		아버지들	놀이의 주체	자녀와 놀이하는 부성	
		자녀 vs 아버지	자녀와 함께함	공동의 놀이	
	행동 제스처	자녀의 선호 놀이 탐구(전화, 인터넷, 자녀 의견)	자녀 관심, 공동 문제 해결	자녀 관심	
		거친 행동 수용	친근함, 공격성 수용	허용적 프렌디	포스트 모던 남성 이데올로기
		자녀와의 친근한 눈높이 대화	자녀 관심, 관계적	교육적 프렌디	
		아르바이트, 놀이 참여	공동의 작업	관계적 부성	
		소꿉놀이 참여	여아 놀이 참여	여아의 프렌디, 허여적	
	카메라	미디어 슷	대인관계 두 주체의 친근함	관계적 부성	
	소품	칼, 자전거, 하키, 패러글라이더	장난감	자녀 중심 놀이	
언어	'아빠에 의한, 아이를 위한 깜짝 12시간'	헌신, 주체적	헌신적 부성		
	'지난 10개월 간 아이들과 여행을 하며 아이들과 좀 더 깊게 알게 된 아빠들'	여행을 통한 친밀감 획득	실천적 관계성 획득		
	'아빠와 함께 계획하는 12시간'	공동의 작업	관계적 부성		

	'빠른 실행,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러 나가는 아빠들'	자녀 놀이 참여	놀이 참여적 부성	
	"자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무언가 대단한 걸 준비한 아빠도 있다'	헌신, 자신감. 자발적 참여	즐거운 교육 실천	육아 모성 이데올로기
	"여보, 고요함을 선물해 줄게"	모성 육아 대체	공동 육아	성 고정관념 이데올로기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의 12시간을 계획하면서 보다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양상이 드러났다. 이들이 자녀들의 의사대로 하키장, 자전거 연습장, 패러글라이딩 체험장 등의 장소를 방문하여 자녀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육아를 자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부성을 재현했다. 특히 '아빠에 의한, 아이를 위한 깜짝 12시간,' '지난 10개월 간 아이들과 여행을 하며 아이들과 좀 더 깊게 알게 된 아빠들,' '무언가 대단한 걸 준비한 아빠도 있다' 등의 자막은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 놀이 주체가 되어 자녀와의 추억 만들기를 실행하는 부성들을 그려내겠다는 연출자의 다짐이었다. 출연진 모두는 프렌디로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헌신적이고 놀이 참여적인 부성으로 그려졌다.

"여보, 고요함을 선물해 줄게"하며 어머니와 이별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 역시 초도로우가 여성해방의 이데올로기로 설정했던 공동양육의 모범적 재현이었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자식과의 헌신적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성 지향을 표출한 부성의 모습들은 공동 육아 이데올로기와 프렌디 이데올로기, 그리고 포스트모던적 남성 이데올로기를 잘 보여주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상당 부분 파괴되고 전복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6. 2014.11.16 방송분 전통적 부성성 의미

구성 요소	의미화 1차 단계		의미화 2차 단계	신화/이데올로기
	기표	외시 의미		
영상	행동 제스처	서로에게 전화문의, 집에 있는 제인	육아 방법 무지	비일상적 육아

	남아	폭력의 수용, 거친 행동 수용	남아 공격성 수용	성 고정관념	육아 모성 이데올로기
	남아	나약함 제재	강인함. 감정 통제	전통적 성역할 훈육	
	여아	취향 무시	아버지의 권력	여아 지배적 부성. 성 차별	
카메라	남아	롱 샷	활동 범위, 공격 거리	공적 정체감	성 차별 이데올로기
	여아	클로즈업	친근감	여아 대상화	
색채	여아	분홍, 파스텔	여성성	성 고정관념	지배적 남성 이데올로기
의상 소품	남아	스모츠 장비	활동성, 외부	공적 위치	
	여아	소꿉놀이	수동성, 가사일	사적 위치	
언어	(카메라 밖 아내에게) "평상시에 난 애들이랑 뭐했지?" "여보 같이 가자"		아내 의존적, 자녀와의 일상이 기억나지 않음	육아의 비밀상화	지배적 남성 이데올로기
	(아이와 할 일을 계획하라고 하자) "미지겠다. 집에서 그냥 잘까?"		회피, 귀찮음.	육아의 회피	
	"TV 시청이라고 써줘" '뭘 하지? 만 무한 반복'		회피, 육아 무지	육아의 비밀상화	
	(넘어져 울던 남아가 돌아오자, 자막) '그렇게 배워야 사나이'		강인함, 남성다움	성 고정관념	
	"재는 남자가 빠이빠이가 뭐야"		남자답지 않은 표현	남성 언어의 고정관념	
	(여아가 "이제 난다" 하고 좋아하자) "왜 재는 겁이 없지?"		여자답지 않은 행동	여아 성격의 고정관념	

그러나 방송의 전반부, 정작 미션이 전달되자 당황해 하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대는 부성의 모습도 이율배반적으로 드러났다. 집에서 쉬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아이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는가 하면, 불안해하며 카메라 앵글 밖에서 있는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등 실제로는 육아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성의 공동 육아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기존의 모성 육아(전담)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재생산하고 있는 전통적 부성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성을 배제한 채 부성이 자녀와의 일대일 관계에서 드러내는 행동과 말하는 이들의 직접적인 젠더 의식을 반영한다. 본 방송분의 젠더 사회

화 행위를 살피면, 먼저 출연진 부성들은 남아들에게는 강인한 남성성을 가지도록 훈육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젠더 차별적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 자전거를 타다가 자주 넘어져 우는 남아에게 ‘그렇게 배워야 진짜 사나이’라는 자막을 통해 여아와 대립적인 남성의 강인함을 강조했다. 또한 여아들이 쓰는 말투라는 이유로 남아의 언어(“빠이빠이”)를 단속하는 아버지의 젠더 의식도 드러났다. 이는 오늘날 부성 세대의 젠더 고정관념 이데올로기, 나아가 젠더 차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여아들의 놀이 제안에 대하여는 쉽게 이를 거부하고 아버지 자신이 좋아하는 낚시터로 데려가 자신의 취미를 강요하는 지배적 남성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이들이 보여주고자 한 페미니스트로서의 남성 육아 실천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이들의 자녀와의 시간 보내기는 페미니스트로의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 오히려 가족주의 행복 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젠더 역할 개념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아 아동들에게 새로운 젠더 인식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여전히 여아에게는 소꿉놀이 같은 현모양처의 소품을 부여하고, 남아에게는 칼, 하키 등의 공격적이거나 활동적인 소품들을 부여하는 등 출연진과 연출진이 공유한 젠더 고정관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카메라도 남아들의 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룻숯을 잡음으로써 이들이 지닌 공격 정체감과 활동성을 강조한 반면, 여아들의 경우는 주로 먹는 얼굴을 클로즈업을 함으로써 귀여운 외모를 대상화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러클라이딩이라는 동일한 스포츠를 즐기는 여아와 남아에게 있어 부성이 대하는 태도 역시 각각 상반되게 재현되었다. 과격한 스포츠는 남아들이 즐기기에 적합하며 여아들에게는 적합지 않다는 젠더 고정관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젠더 고정관념 이데올로기, 젠더 차별 이데올로기, 지배적 남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육아하는 현대적 부성’이라는 대중의 이상적 욕망과 상호 모순되는 기존의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육아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은 변화한 시대의 부성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어, 현재 부성 이데올로기의 시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징에 해당하는 어색한 편집, 현장 설치 카메라와 음향장치의 노출, 자막의 개입, 출연자의 실수나 NG 등을 분석대상의 일부로 수용하면서[31] 현 시대가 미디어를 통해 재현하고 있는 부성 이데올로기를 다양한 기호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해당 프로그램에는 현대적인 부성성의 의미가 명료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상충되는 여러 가지 함축의미들이 내재되어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빠 어디 가>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발견된 부성성과 그 함축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표면상 젠더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을 드러냈다. 부성들은 모성의 고유 영역으로 이해되어왔던 육아의 영역에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젠더 역할의 고유한 성역들을 파괴하고 초도로우와 발부스가 젠더 평등 사회를 위한 주요 요소로서 강조하였던[14][22] 공동 육아를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남성의 이상적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부성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 탈권위적 프렌디 이데올로기를 현대의 부성 이데올로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성 변화에는 양성적 남성으로의 변화를 함축하는 포스트모던적 남성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9]. 이는 대중들의 이상화된 부성에 대한 기대가 미디어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오늘날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현대의 부성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들의 양육 행태에서 드러난 허여적 남성성의 표현과 양성적 행위 방식이 결코 기존의 가부장적 구조를 파괴하거나 전복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메스너(1996)의 견해는[10] 본 프로그램에서 명확하게 지지되었다. 본 프로그램이 재현한 육아 실천에서의 변화는 현대의 이상적인 페미니스트 남성상을 대변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그들이 젠더 사회화의 외부적 주체로서 자녀를 지도하는 양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젠더 고정

관념과 차별적 해석, 그리고 지배적 부성을 표출하고 있어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부성의 육아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인 페미니스트적인 남성의 이상적모습이 자녀에 대한 젠더 인식과 지도 내용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며 여전히 남성의 젠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고 지배적 남성의 위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함축을 가진다. 부성의 젠더 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한 양육 행위는 초도로우와 발부스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미래지향적인 젠더 평등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이다[14][22]. 미래 사회 변혁의 핵심은 부모의 공동 양육의 실천과 자녀들의 양성적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14][22] 본 프로그램 속에서 재현된 포스트모던적, 프렌디 부성으로의 성향 변화가 자녀의 젠더 평등 사회화에 현실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전통적 남성성에서의 발전적 변화 역시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10].

부성의 자녀에 대한 젠더 역할 인식과 젠더 사회화 과정은 매우 직접적이며 중요하다. 현대적 남성성을 논의할 때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을 측정하기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양성성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젠더 사회화에 쏟는 노력이 남성 중심 사회의 권력 구조의 개편을 가져온다는 희망을 반영하는 시대에, 평등한 젠더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하는 부성의 시대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성의 프렌디로서의 육아 실천 행위와 더불어 전통적인 젠더 고정관념 유지라는 상호 모순적 재현이 가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재현된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늘이하는 시간의 증가가 부성들이 젠더 인식을 개선하는 질적 성장에 기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도로우와 발부스가 주장했던[14][22] 공동육아의 이상적인 지향과는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아빠 어디 가>가 기존의 권위적인 남성 이미지를 탈피하여 탈권위적이고 감정표현에 익숙한 부성을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일반적 분석은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지만[28] 실제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보다 다양하다[27]. 가

족 프로그램으로서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오늘날 TV 프로그램 시청 빈도와 그 영향력에 있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 이데올로기는 해당 사회에 강력한 압력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본 프로그램은 오늘날의 이상적인 부성의 모습을 제시해 주면서, 동시에 이상적 부성에 대한 계도적 지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아빠 어디 가>는 2015년 1월 종영되었는데 현대 대중이 회구하는 부성의 모습이 그 실천과 인식에서 명료하지 않으며, 그 이상적 모습이 아직은 이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상향의 모습은 부모의 공동 육아이지만 실제로 부모들의 인식을 통해 보편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모습들은 현재의 우리사회의 공동 육아에 대한 현주소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공동 육아를 위한 미래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들은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 문헌

- [1] G. H. Brody, Z. Stoneman, and A. Sanders, "Effects of Television Viewing on Family Interactions: An Observ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Vol.29, pp.216-220, 1980.
- [2] M. Orleans and M. C. Laney, "Early Adolescent Social Networks and Computer Us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ol.18, pp.56-72, 2000.
- [3] D. G. Singer and J. L. Singer, *Handbook of Children and the Media*, London: Sage, 2011.
- [4] 김미라, "리얼리티 테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테이트와 이성 관계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Vol.52, No.2, pp.353-450, 2008.
- [5] <http://stat.seoul.go.kr/jsp2/WWS2/WWS2S2111>.

- jsp?cd=005&sr1=141&page=7
- [6] 김혜영, “2012년 여성·가족정책 수요 조사,” KWDI Brief, Vol.21, pp.1-8, 2012.
- [7] 손소영, “아버지 역할이 나타난 TV 광고 분석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4, No.5, pp.217-227, 2013.
- [8] 백선기,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9] 백선기, 김남일, “방송을 통해 표출된 김건모 노래 가사의 신화와 이데올로기: ‘남성성’ 유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Vol.18, pp.69-110, 2006.
- [10] M. A. Messner, “Changing Men and Feminist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Eds.) *The Politics of Manhood: Profeminist Men Respond to the Mythopoetic Men’s Mov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97-111, 1996.
- [11] A.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Notes References, 1977.
- [12] S. Freud,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UK: VINTAGE, 2014.
- [13] 조선화, “아버지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4, pp.179-203, 1997.
- [14] N. Chodorow, *Femininities, Masculinities, Sexualities: Freud and beyond*,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4.
- [15] M. E. Lamb,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NJ: Wiley, 2010.
- [16] 홍길희, “아버지의 언어형태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Vol.25, No.1, pp.49-64, 2007.
- [17] 도금혜, “아동의 자아존중감, 섭식태도 및 학교 생활적응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Vol.21, No.3, pp.111-125, 2008.
- [18] 문정희,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형태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 [19] 고선옥, 이영환,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 특성, 양육신념, 유아의 창의성간의 인과 관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Vol.47, pp.1-19, 2006.
- [20] J. K. Gardiner, “여성주의와 아버지상의 미래,” In T. Digby(Ed.), *Men doing Feminism*, 김고연주, 이상원 역, *남성 페미니스트*, pp.329-359, 또 하나의 문화, 2004.
- [21] L. A. Beaty, “Effects of Paternal Absence on Male Adolescents’ Peer Relations and Self-image,” *Adolescence*, Vol.30, No.120, pp.873-880, 1995.
- [22] I. D. Balbus, *Marxism and Domination: A Neo-hegelian, Feminist, Psychoanalytic Theory of Sexu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Libe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 [23] J. P. Sterba, “여성주의는 남성에게 유익한가, 남성은 여성주의에 유익한가,” In T. Digby(Ed.), *Men doing Feminism*, 김고연주, 이상원 역, *남성 페미니스트*, pp.360-380, 또 하나의 문화, 2004.
- [24] A. Giddens, *Sociology (6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Ltd, 2009.
- [25] D. Hobson, *Soap Opera*, Cambridge: Polity, 2002.
- [26] 이운석, 김슬기, “한국 영화에 나타난 아버지 캐릭터의 부성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2, pp.215-228, 2011.
- [27] 한희정, “부성회복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빠 어디 가> 수용 연구,” 사회과학연구, Vol.29, No.3, pp.161-186, 2013.
- [28] 김미라,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과 그 한계 -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 pp.88-96, 2014.
- [29] 최은경, 김승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과 비판적 성찰의 이중성: 연예인 구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드미스가 간다>의 텍스트 및 수용 분석,” 한국방송학보, Vol.24,

No.3, pp.175-219, 2010.

[30] B. Nichols, *Blurred Boundaries: Questions of Meaning in Contemporary Culture*,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31] 박주연,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 한국언론재단, 2005.

[32] 홍석경,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구성: 현실과 허구의 혼합을 통한 텔레비전의 장르형성에 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Vol.16, No.1, pp.257-280, 2004.

[33] www.imbc.com/broad/tv/ent/sundaynight

[34]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35] J. Fiske, *Television Culture*, New York: Methuen, 1987.

[36] 서영채, *인문학 개념 정원*, 문학동네, 2013.

[37] 전우성, 김인형, “기호학적 방법을 통한 영화<코리아>에 내재된 스포츠 이데올로기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Vol.27, No.2, pp.19-35, 2013.

- 1989년 : Univ. of Minnesota, Communication Studies 전공(박사)
- 1990년 ~ 1997년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1997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 PACA 회장, WCA 회장, IAMCR 국제평의회 의원
한국방송학회 회장 및 한국기호학회 부회장 등 역임

<관심분야> : 기호학, 대중문화, 문화연구, 담론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저 자 소 개

이 란(Ran Lee)

정회원



- 1994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문학사)
- 2003년 : Univ. of Edinburgh (Msc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2014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아동미디어콘텐츠, 미디어리터러시

백 선 기(Seon Gi Baek)

정회원



- 1979년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81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1985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수료)